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는 등의 민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민법과 일치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부모의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909조의2의 내용을 예규에 반영함(안 1. 나. 및 다. 신설)
- 단독 친권자 또는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 제외)에게 친권 상실,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927조의2의 내용을 예규에 반영함(안 1. 라. 신설)
-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해상반행위에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친권자만을 채무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2. 나. (5) 신설]

-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민법 개정 내용을 예규에 반영함(안 3.)
-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 정보를 규정함(안 4. 신설)

3.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민법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1)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에 따라 친권자로 지정된 생존하는 부 또는 모
- (2)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 미성년후견인
- (3) 민법 제909조의2 제5항에 따라 임시로 법정대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선임된 자(이하 “임무대행자”라 한다). 이 경우 임무대행자가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명령을 증명하는 정보(심판서 등본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1.에 다.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 민법 제909조의2 제2항에 따라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도 동일).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 미성년후견인, 친권자로 지정된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3) 위 나.3.의 임무대행자

라. 단독 친권자 등에게 친권 상실,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나. 및 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 친권자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독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민법 제927조의2)

2.가.(1) 중 “그 친권에 복종하는”을 “그 친권에 따르는”으로 하고,
“동일한 친권에 복종하는”을 “동일한 친권에 따르는”으로 한다.

2.나.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친권자만을
채무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미성년후견인에 의한 등기신청

가.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931조 제1항 및 제932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나.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민법 제940조의2 및 제940조의3에 의해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민법 제950조 제1항).

다.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규정의 준용

위 1.과 2.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미성년후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준용한다. 다만 위 2.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미성년자 또는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하여야 한다.

4.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가. 1.가.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나. 1.나.다.라.의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사망일이 2013. 6. 30. 전이면 미성년자인 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다. 2.의 경우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

라. 3.의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1.나.다.라.에 대한 경과조치) 미성년자의 부모 일방이 2013. 6. 30. 이전에 단독 친권자로 된 경우 등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p> <p><u>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u></p> <p><u>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u></p>	<p>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p> <p><u>나.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u></p> <p><u>민법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u></p> <p><u>(1)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에 따라 친권자로 지정된 생존하는 부 또는 모</u></p> <p><u>(2)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 미성년후견인</u></p> <p><u>(3) 민법 제909조의2 제5항에 따라 임시로 법정대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선임된 자(이하 “임무대행자”라 한다). 임무대행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선임심판서[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13)의2, 제39조]와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명령을 증명하는 정보(심판서 등본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u></p>

<신 설>

다.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 민법 제909조의2 제2항에 따라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도 동일).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 미성년후견인, 친권자로 지정된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3) 위 나.3.의 임무대행자

라. 단독친권자 등에게 친권 상실,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1) 민법 제927조의2에 따라 단독친권자 또는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 제외)에게 친권 상실, 소재불

<신 설>

2.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 여부

가. 원칙

(1)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또는 동일한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 또는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하 “특별대리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

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예

(1) ~ (4) (생략)

<신설>

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나. 및 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민법 제927조의2제1호의3,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단독 친권자의 친권 일부가 제한된 경우와 단독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사퇴)한 경우에도 위 (1)과 같다.

2.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 여부

가. 원칙

(1) ----- 그 친권에 따르는

----- 동일한 친권에 따르는

-----.

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예

(1) ~ (4) (현행과 같음)

(5)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친권자만을 채무자로 하는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미성년자와 후견인의 관계에 준용
위 1, 2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미성년자와 후견인의
관계에 준용한다.

<신 설>

3. 미성년후견인에 의한 등기신청
가.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
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931
조 제1항 및 제932조에 따라 지정
된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
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나.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민법 제950조제1
항 각 호의 행위에 따라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40조의2
및 제940조의3에 의해 선임된 미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증명하
는 정보(인감증명서 포함)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규정
의 준용

위 1.과 2.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
하지 아니하는 한 미성년후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준용한다. 다만
위 2.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야 하는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그 미성년자 또
는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미
성년후견감독인이 하여야 한다.

4.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제공

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 1.가.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고, 1.나.다.라.의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만 제공하여도 된다. 다만, 단독 친권자의 사망일이 2013. 6. 30. 전이면 미성년자인 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3) 2.의 경우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를 제공하고, 3.의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제공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6043